



위기의 오리산업

[오리농가 휴지기제] 대책이 필요하다

2018.9.14(금) 14:00~16:00
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(203호)

모시는 글

고병원성 AI(조류인플루엔자)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의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실시하는 오리휴지기제가 해제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. 휴지기제 이후 폭등과 하락을 반복하던 오리가격은 지난 복경기를 맞으며 한달사이 20%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오리휴지기제가 오리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. 휴지기제 시행으로 오리업계가 추정하는 관련산업 피해액은 약 675억원에 달합니다. 전후방 산업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.

이에 현실적인 제도정착과 대안마련을 위해 '위기의 오리산업 - [오리농가 휴지기제] 대책이 필요하다'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. 공사간에 매우 바쁘실 줄로 생각되오나, 부디 이번 좌담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.

2018년 9월

국회의원 경대수



세부일정

좌장 :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

14:00~14:30	참석자 등록	
	국민의례	
14:30~14:40	개회사 환영사, 축사	경대수 국회의원
14:40~15:00	주제발표	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
15:00~15:50	지정 및 추가토론 <무순>	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순금 다솔 대표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 정상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
15:50~16:00	청중질의응답	
16:00~	정리 및 폐회	